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계신다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 1. 만경대 해돋이 되시여 세월의 어둠가시고
백두의 붉은기 되시여 력사의 앞길 밝혔네
주체의 새시대 열어준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었던가
- 2. 이 땅에 누구도 못해본 일심의 화원가꾸고
세상에 누구도 못 세운 인덕의 락원 꾸렸네
주체의 강국을 꽃피운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었던가



- 3. 오늘도 자주의 빛발은 누리를 밝게 비치고
래일도 반제의 한길에 선군의 승리 빛나리
주체의 영원한 태양인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었던가



위대한 혁명생애와 길 이 빛 날 것 이 다
김정일장군님의 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장엄한 역사적대진군에 펼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장장 수십성상 탁월한 선군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어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세계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김일성주석의 당, 가장 권위있고 전도양양하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것을 결정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대표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천만년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화같은 흠모심과 감격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였다.

인류가 낳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이시며 백전백승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영원무궁한 행복이며 태양민족의 대경사이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을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민족사에 처음으로 강성변영의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회세의 정치원로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총정의 표시이다.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주석, 김정일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항도하며 선군의 우리 공화국을 영원무궁토록 온 세상에 떨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출중한 위인적품모와 뛰어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시는 역사적인 시각 대표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며 선군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대경사이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절세의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빛내이시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여 빛나게 실천하시며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주체적군건설사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대표자회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의 심장이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올릴 때에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혁명적열의와 락관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은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와 더불어 더욱더 찬연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혁명적열의와 락관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은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와 더불어 더욱더 찬연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4월 11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표자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었다.

대표자회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표자회에는 조선인민군당, 각 도당, 정치국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인들,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대표자회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각 도대표자들의 대표회의 위임에 의하여 최영림 내각총리가 의장으로 사임하였다.

대표자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표자회는 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표자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결정하였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3.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4. 조직문제에 대하여
- 대표자회에서는 첫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 보고를 김영남위원장이 하였다.
- 황해남도당조직대표인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선인민군당조직대표인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황해북도당조직대표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부위원장, 함경남도당조직대표인 로두철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문화성당조직대표인 안동춘 문화상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한 결정서가 랑독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평생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공화국을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조국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둘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셋째 의정을 토의하

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위원장이 하였다.

조선인민군당조직대표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평안북도당조직대표인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함경북도당조직대표인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황해남도당조직대표인 리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평안남도당조직대표인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이 토론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랑독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령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금지과 자부심, 주체혁명, 선군혁명위업의 중공적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면서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시였음을 선포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넷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보선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하고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부장들을 임명하였다.
-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김영남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 대표자회는 《인러나소날》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가 4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석단에 참석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최대복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제 100(2011)년 사업정형과 주제 101(2012)년 과업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 100(201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제 101(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5.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는것과 관련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대원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대원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추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당, 전군, 전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업을 받드시여 당과 군대, 국가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를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기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의사가 반영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 주제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2012년의 자랑스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아버지장군님께서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조강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제100년사가 빛나게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최영림대원이 하였다.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최광진대원이 하였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하여 판법기대의원, 김창룡대의원, 리용대의원, 최종건대의원, 고명희대의원, 황영삼대의원, 송윤희대의원, 김형덕대의원, 김성희대의원, 포희성대의원, 량장균대의원, 김광주대의원, 여만현대의원, 김영송대의원 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영원히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에 결속되고 공화국정권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내각의 과업이 명백히 제기되고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옹건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와 남조선피괴적패당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업보고와 주제100(201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 101(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인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대의원,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대의원,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대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대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와 제5차회의에서 추대, 선거된 국방위원회 성원들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내각 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을 보선하였다. 최대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태양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회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우리 혁명의 최악의 역경속에서 선군정치를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국가정치체제를 확립하시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령도를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천만년 받들어모시게 된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열광적으로 터쳐올렸다.

은 세계가 공인하고 청송하는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선군령도자께서 펼쳐주신 주제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태양조선의 무궁한 영광이며 최상의 존엄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신것은 탁월한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공화국정권을 주제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어 김일성조선의 백승의 미래를 담보해주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만고의 전설적위인께 드리는 최상최대의 경모와 칭송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영원히 높이 모시으로써 백두천출명장의 특출한 선군혁명령도업적이 태양조선의 무궁한 력사에 천추만대 빛나고 우리 조국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국가로 천만년 존엄을 떨치게 되었다.

회의는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영원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총대로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온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며 장군님의 리상을 만대에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리념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 강성번영을 위하여 선군혁명의 한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광명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문무를 겸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지니시고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주제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력사적인 이 시각 최고인민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주석, 김정일장군님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담보하는 특기할

경사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모신것은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혁명과 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고부동한 지지의 발현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갈 참된 혁명동지, 전우가 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따라 역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반만년민족사의 최상최대명절 - 2012년의 태양절

위인송가 높이 부르며 태양절을 빛내이리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여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개막식이 세계인민들과 예술인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홍겨운 농악무와 부채춤, 상모춤, 금바라춤 등과 교예종목들, 어린이들의 이채로운 재주는 개막식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개막식에는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기

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능수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동춘 문화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

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만경대의 노래》를 비롯한 노래선물에 맞추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예술인들이 위인칭송의 마음을 담은 화려한 춤무대를 펼쳤다.

무대화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세계 여러 나

라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접견해주시는 영상들을 모신 화폭들이 펼쳐지자 참가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에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영상이 화면에 모서리지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지면서 또 한분의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장내에 세차게 끓어올랐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정부와 관공들은 예술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과 명배우들이 보내여 온 전품, 편지가 낭독되었다.

개막사를 안동춘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예술인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축전에 여러 나라의 저명한 문화관계인사들, 국제국내 공클수상자들을 비롯한 이름있는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공연무대를 장식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발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리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빛나는 조국》 노래선물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계양하였다.

전체 축전참가자들은 회세의 천출위인들께 드리는 태양찬가를 높이 불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경축하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지금 평양시내 여러 극장에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혼성중창 《수령님 노래는 영원합니다》



조선노래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노래》

바이올린 연주 《대를 이어 흥중에 다함없다》

몽골전군협주단의 여성독창 조선노래 불후의 고적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중국예술단(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무단)의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제14차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14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절경축》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나붙어있고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 있다.

3만여상의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과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져 있다.

축전장에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대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피운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여러 나라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개별적인

사들, 불멸의 꽃보급후원회 회원들의 지성이 어린 꽃들도 축전장에 활짝 피어났다.

축전개막식이 13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앞에서 진행되었다.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대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제14차 김일성화축전

김일성화 만발하는 태양절은 인류의 대경사

제 14차 김일성화 축전 개막



인도네시아정부 문화대표단과 아호메드 띠자니 씨네 공화국 문화, 유산상일행, 김일성화 김정일화보급후

원회 명예회장인 데이 수카르노 국제김일성상사회 성원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개막식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이 꽃바다로 펼쳐지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을 흠모하여 태양의 꽃들을 활짝 피우는것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라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축전을 통하여 불멸의 꽃재배와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교류와 협력의 뉴대를 두터이함으로써 위인칭송의 꽃들이 온 세상에 만발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문화대표단 단장인 판광 및 지적경제성 총감독이구스미 뿌투 락사구나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육종된 꽃을 선물로 드린 때로부터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와 조선사이의 영리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경축의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